‘불가촉천민’에게 부처님 자비를

사망자만 10명 넘어… “불교계서 국제적 관심 가져야”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천년 넘게 카스트 제도속에 차별과 억압속에 고통받던 인도의 달리트(최하층 계급인 불가촉천민)들이 최근 평등과 자비를 가르치는 불교를 앞세워 인도 사회에 맞서고 있어 화제다.

인도 사회는 지금 계급갈등으로 들끓고 있다. 인도 대법원이 ‘불가촉천민보호법’을 완화하는 취지의 명령을 내리자 달리트 출신 시민들이 거센 저항에 나선 것이다.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인도 수도 뉴델리를 포함한 인도 전역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반대하는 수만명의 달리트들이 시위를 벌였다. 도로와 철도를 막아선 시위대들이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해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수백명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달리트들의 격한 반응에 인도 연방 정부는 뒤늦게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며 중재에 나섰다. 대법원은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3일 심리를 열고 정부의 주장을 청취하기로 했지만 앞선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번 대법원의 재심 결정은 인도 계급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정부는 법적으로 카스트 제도를 폐지한 후에도 최하층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끊이지 않자 이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면서 계급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달리트와 불교

달리트와 불교의 역사는 빔라오 람지 암베드카르(Bhimrao Ramji Ambedkar)로부터 시작된다. 불가촉천민 출신 최초로 법무장관까지 된 암베드카르는 차별을 불법화하는 인도 헌법 구성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힌두교리 내에서는 카스트제도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느끼고 1955년에 ‘인도불교협회’를 설립했다. 그리고 1956년 약50만 명의 동료 달리트와 함께 인도 나그푸르에서 의식을 치르고 불교도가 됐다. 신불교운동을 통한 인도불교 부활의 시발점이었다. 이후 달리트들은 부처님이 2천 5백년 전부터 강조한 ‘평등’에 입각해 차별 금지를 부르짖어왔다.

암베드카르는 1956년에 사망했지만, 수많은 달리트가 그 뜻을 이어받았다. 그러다 보호법이 완화된다고 하자 다시 평등을 부르짖으며 행동으로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이들은 특히 암베드카르의 정신을 앞세웠다.

◇달리트 열 받게 한 불가촉천민보호법 완화 명령

‘CNN’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인도 대법원은 ‘지정 카스트·지정 부족 보호법(불가촉천민보호법)’에서 상층계급이 달리트를 학대할 경우 가해자를 즉시 체포하도록 하는 조항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며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신고 사례 중 15~16%는 허위인 경우도 있어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법은 1989년 상층계급의 학대와 억압으로부터 하층계급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1947년 카스트 제도가 폐지됐지만 여전히 인도 사회에서는 하층계급에 대한 차별이 당연시돼 이들을 보호할 마땅한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에 따라 하층계급을 억압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체포되며 보석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 가해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도 포함돼있다.



차별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달리트들이 인도 현지 경찰관들과 대립하고 있다. 사진출처=Aljazeera.com

카스트제도 최하계급 ‘달리트’
‘천민보호법’ 완화 개정에 분노
신불교운동 암베드카르 정신계승
‘평등’ ‘자비’ 佛法으로 맞서 싸워

달리트 측은 대법원의 결정으로 달리트를 비롯한 억압받는 소수 계층을 보호하는 수단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영국 ‘BBC’에 따르면, 이 법은 상위계층의 무차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법인데, 유죄 선고율 마저 매우 낮아 무용지물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달리트 출신의 한 사회운동가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집권당인 인도인민당(BJP)이 달리트에 대한 보호장벽을 무너뜨리려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힌두근본주의 성향의 BJP가 집권한 이후 힌두근본주의자들은 달리트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역차별 논란 불러온 하층민 우대제도

인도가 1950년에 카스트 제도를 폐지한 이후 계급 갈등은 인도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여전히 남아 있는 카스트 제도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하층민 우대 제도를 도입하자 일부 계층에서 역차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인도 정부는 하층민에 대한 관습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하층민에 속하는 카스트 계급에는 공무원직의 절반과 대학 입학 정원의 일부를 할당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카스트 세부 계층 중 하나인 ‘파텔(Patel)’은 자신들이 하층민 특혜 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을 문제 삼으며 거리에 나와 돌을 던지고 버스에 불을 지르는 등 격렬한 시위를 일으켰다. 카스트는 크게 브라만(성직자), 크샤트리아(군인), 바이샤(평민), 수드라(천민)로 구분하고, 성(姓)과 직업에 따라 3000여 계급으로 세분화되는데 파텔은 중상급으로 평가받는다.

달리트는 카스트 제도에 포함 조차 되지 않는 최하층민인데 최근 이들에 대한 공격도 늘고 있다. ‘BBC’에 따르면, 젊은 달리트들이 예전보다 향상된 삶을 누리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층민들이 이들을 공격하는 것이다. 지난주에는 달리트 출신 남성이 부유계층의 상징인 말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폭력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명의 상대 절에서 찾아요!”

일본 사찰서 결혼중개 ‘인기’
25세~45세 까지 가입 가능

2010년부터 진행돼 지금까지
130쌍 이상 부부 중개성공해

스님들 자원봉사로 진행돼
참가비 외 입회료 등 없어



사찰서진행되는 결혼중개모임 ‘길연회’의 모습. 사진출처=파우치

‘절이란 다양한 만남이 만들어지는 장소’라는 일념 하에 일본 사찰서 결혼중개를 해줘 인기를 끌고 있다.

일본 인터넷 매체 ‘파우치’ ‘프레스릴리즈’ 등은 현재 결혼적령기가 늦어지는 와중, 사찰에서 결혼중개를 해주며 수많은 커플을 탄생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중개업을 처음 시작한 것은 일본의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浜松市)의 료운지(龍雲寺)의 부주지 키미야 코시(木宮行志)스님이다. 스님은 2010년 3월 결혼중개 모임으로 ‘길연회’를 처음 만들어 현재까지 회원수 1만 3천 500명을 보유중이며 성혼된 커플만 130쌍이다.

당시 결혼중개업소, 사이트 등이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코시 스님은 당시 지인에게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상대를 만나는데 수십만 엔이 든다는 고충을 들었다고 한다. 코시 스님은 “원래 절이란 곳은 다양한 만남으로 만들어지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곧 도반 스님들의 협력을 얻어 절에서 결혼중개를 해보자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스님은 ‘길연회’라는 결혼중개 모임을 만들었다. 25세에서 45세까지 독신남녀라면 신도나 불교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회원으로 받았다. 모임과 상담 장소는 사찰이었다.

이 모임은 시작과 동시에 뜨거운 반응을 몰고 왔다. 처음 시작된 2010년 3월에는 남녀 60명을 모집했지만, 200명이 지원했고, 동년 10월에는 길연회 인연의 첫 부부가 탄생했다. 이후 입소문을 타고 지원자가 늘면서 한 기수당 200명으로 정원을 제안하고 있지만 지원자는 1천명이 넘는다.

코시 스님은 “절에서 결혼중개를 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신뢰하는 것 같다. 비용적으로도 사실상 스님들의 자원봉사로 결혼중개를 하고 있기에 입회료나 소개료 등의 비용이 없다. 지원자들을 스님들이 면담한 후 회원으로 받기 때문에 결혼에 진지한 분들이 많이 모인다”고 말했다. 실제 이 모임은 참가비 명목으로 회당 3천 엔(한화 약 3만원)을 받을 뿐 일체의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다.

길연회는 현재 시즈오카현을 넘어 일본 전국에 6개 지구가 있고, 연간 평균 4~6회 가량 회원 모임을 진행한다. 법당에 모여 스님이 좋은 인연이 있기를 바라는 기도를 진행한 후 임의로 조를 편성, 조원을 바꿔가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코시 스님은 “길연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길상한 인연이다. 꼭 결혼이나 연인을 만들기 보다는 이 모임을 통해 새로운 벗과의 인연, 부처님과의 인연, 절집과의 인연이 넓어져 모든 인연이 길상하길 바란다”며 웃어 보였다.

박영빈 객원기자

印정부, 까르마빠의 시킴 방문허용

주석사원인 룸텍(Rumtek)사원은 불허

티베트 불교지도자 17대 까르마빠(Karmapa) 오갠 틴래 도르제(Ogyen Trinley Dorje)의 시킴주(州) 방문을 인도정부 안보각료회의가 허가했다고 ‘티베트 선’이 4월 1일 보도했다.

까르마빠는 티베트 불교 내에서 까르마 까규(Karma Kagyu) 종단을 이끄는 수장으로 지난 2000년 1월 5일 극비리에 티베트를 탈출, 인도로 망명했다. 당시 인도정부는 까르마빠의 망명을 받아들였지만, 티베트 망명정부과 중국정부 양측이 공인한 환생자라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주석사찰인 시킴의 룸텍사원에서의 거주는 불허했다. 또 해당 종단의 고위 승려인 샤마르 린포체(Shamar rinpoche)가 내세운 또 다른 17대 까르마빠가 존재한다는 종교적 민감성도 불허의 이유로 꼽혔다.

오갠 틴래 도르제는 달라이라마가 머무는 다람살라 근교의 규뙤(Gyuto)사원에 임시로 머물고 있으며 인도내의 이동과, 해외방문에 인도정부의 허가를 요하는 등의 이동에 제한이 있었다.

까르마빠의 복귀를 원하는 시킴주의 까르마 까규파 소속 스님들의 릴레이 단식투쟁은 630일 가까이 이어졌다. 지난 3월 20일에는 시킴주지사 파완 쿠마르 참링(Pawan Kumar Chamling)이 공식적으로 인도 외무부에 까르마빠의 시킴 방문과 룸텍사원으로의 이주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의 노력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까르마빠의 공식 대변인 까르마 충얠빠(Karma Chungyalpa)는 “이번 허용에 대한 결과를 온라인 발표와 부속 공문을 통해 통지받았다. 이번 방문은 까르마빠를 따르는 시킴의 불자들 뿐만 아니라 히말라야 지역의 불자들에게도 큰 선연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도정부는 이번 방문을 시킴주에만 한정하며 원래의 주석사원인 룸텍사원의 방문은 허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른 까르마빠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빈 객원기자

사주 명리계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사주공부의 바르고 가장 빠른길!

맹파명리!

《맹파명리》 책에 수록되어 있는 빈주(賓主), 체용(體用), 형(形)과 기(氣), 주공(做功), 간지허실(干支虛實), 상법(象法), 지지의 천(穿), 파(破), 정국(正局)·반국(反局) 등을 통하여 기존 전통명리와는 다른 맹파명리의 촌철살인의 판단방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독자들은 《맹파명리》를 통하여 그동안 잃어버렸던 명리학에 대한 경외심과 신심을 회복할 것이다.



명불허전, 최고 절정의 맹파명리

사주 명리계에 있어서 중국 본토를 완전지배한 맹파명리! 한국 상륙!
법조계,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 지식인의 최고찬사 맹파명리.
새로운 개념, 새로운 논리로 길흉을 정확히 해석해 내는 맹파명리!

맹파명리를 통하여 명리(사주)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했다는 한결같은 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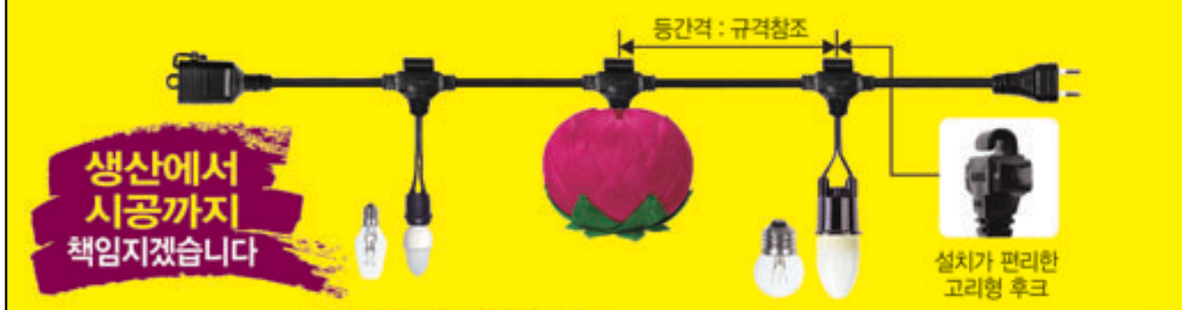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5시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 8시 (저자 직강)
맹파입문반, 혼인반, 재관반, 직업반, 간지상법반, 음양풍수반 순환주기로 강의
강의장소 : 1호선 종로3가 2번 출구 바로 앞 유니클로 옷가게 좌측 영흥빌딩 502호
강의문의 : ☎ 02)765-1468, 010-7143-0543

▶ 전국 유명서점 판매중 ◀

Daum 카페 : “맹파명리” 검색

직접 택배로 받아 보실분은 주소, 성명, 연락처를 알려주시고 송금 바람.
구입문의 : ☎ 02)765-1468. 010-7143-0543
입금계자 : 국민은행 638702-01-372376 (예금주 : 박형규)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LED전구 국산인증(정품)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배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